



공직자의 이해충돌!

★ 회피하면 **Happy** 합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한국전력기술의 이해충돌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청렴포탈 (<http://www.clean.go.kr>)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깊이있는 성과!

Achievement!



2022 07+08

KEPCO E&C Family



통권 471호 2022년 7,8월호(격월간)

발행인 김성암
발행일 2022년 7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iru@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04 Brief News

두산에너지빌리티·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
원자력 청정수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업무협약 체결
2021년도 동반성장평가 우수성과 공유회 개최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사업 협력 MOU 체결
202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참가
가정의 달 맞이 지역아동센터에 간편식품 꾸러미 전달
2022년 직무입문교육 실시
2022년 변화관리 리더십 교육 실시
2022년 사내강사인증교육 실시
원자력 환경변화와 한기의 역할에 대한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ISO 품질·환경·안전보건 통합경영시스템 사후관리심사

08 4차산업

메타버스 2 : 여행과 건축

10 Sci-Tech

오토메이션

12 슬기로운 회사생활

한조각 또 한조각 모여 빛의 마술로 : 스테인드 글라스 캔들홀더

16 맛집탐방

교동872

18 필가는데로

파친코 원서 읽기

20 직원 참여 마당

암도 끝자락 진도에서 마주친 윤림산방

21 수필

비움 속 행복 찾기

22 지역탐방

그리 멀지 않은 여행, 수생식물학습원

26 갈등관리와 소통

HERO 대화로 부서간 업무 협업도 유쾌하게!

28 머니머니

기술분석의 10가지 법칙

30 Shall We Meet?

울곡119안전센터 강중서 센터장

32 퇴직자 소식

드론으로 김천을 띄우다

34 라이프 스타일

김천 100명산 완등 이태용부장

36 독자투고

구둔역에서 / 김유정을 만나다

38 카메라 루시다

대청댐 야경 / 창녕군 우포늪

40 문화소식

도서 <세계사를 바꾼 커피 이야기> 외

42 앵글

세상을 밝히는 빛

44 안전 메시지

직원 타인가, 시스템 오류인가?

46 Editor's Letter

독자의견 등

금빛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자연의 첫 초목은 금빛이었지
오래 머물러 있기 어려운 색조
그 첫 잎은 꽃이었지
그러나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잎이 잎으로 가라앉고
에덴동산에 슬픔이 내려앉고
새벽이 낮에 굴복하고
어떤 금빛도 오래갈 수 없지

- 로버트 프로스트



KEPCO E&C N e w s

두산에너지빌리티·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

6월 14일 두산에너지빌리티,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 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 활성화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그린 암모니아 혼소 발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린 암모니아 생산과 국내 도입 및 활용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그린 암모니아 혼소 발전 산업 구축 및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개발 및 수행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우리회사는 그린 암모니아 혼소 발전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개발(플랜트 연계 설계기술, 최적화)을,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그린 암모니아를 활용한 암모니아 혼소 보일러 모델 및 암모니아 공급 시스템 등 주요기기 개발을 담당하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해외 그린 암모니아 생산을 통한 국내 도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자력 청정수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업무협약 체결

5월 27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호텔에서 ‘원자력 청정수소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과제인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저장 플랜트 설계 및 인허가 대비 기반연구’가 착수됨에 따라 우리회사를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 포스코홀딩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한국원자력학회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해외원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자력 청정수소 사업모델 개발, 지속가능한 원자력·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김성암 사장은 “업무협약과 정부과제를 계기로 원전을 활용한 청정수소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가속화되기를 기원하며, 한국전력기술도 현재까지 축적된 원전의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 수소생산 기반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동반성장평가 우수성과 공유회 개최

5월 25일 김천 본사에서 2022년도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을 위한 ‘2021년도 동반성장평가 우수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1년도 동반성장평가 대응에 노력한 유관부서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전년도 평가 결과 및 2022년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회사는 2022년도 동반성장평가 최우수등급 달성을 목표로 평가항목 중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신규과제 발굴, 협력 거래사 소통채널 강화 등 기관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함기항 경영관리본부장은 “ESG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와 대외적 요구에 부응하여 동반성장평가 최고 등급에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직원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



원자력 청정수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업무협약 체결



2021년도 동반성장평가 우수성과 공유회 개최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사업 협력 MOU 체결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사업 협력 MOU 체결

5월 16일 오라노티엔(Orano TN), 세아베스틸(SeAH Besteel)과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천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박범서 원자력본부장, 오라노티엔 이재민 한국지사장, 세아베스틸 홍상범 전무를 비롯한 3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3사는 각 사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사업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회사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스템에 관한 엔지니어링 및 인허가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오라노티엔은 건식저장시스템 기술 제공과 공급을 담당하고, 세아베스틸은 건식저장용기 제작과 공동 공급업체로 참여할 계획이다.

202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참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열린 ‘202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 참가하였다.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분야 전문 전시회다. 회사는 별도 부스를 마련하여 중형원전 APR1000, 해상부유식 SMR(BANDI),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OASIS CASK) 기술을 선보였으며, 정부 및 업계 관계자와 학생 등 관람객 1,000여명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앞으로도 국내외 원자력 분야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여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홍보와 글로벌 원자력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정의 달 맞이 지역아동센터에 간편식품 꾸러미 전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3일 김천 지역아동센터 13개소(아동 312명)에 간편식품 꾸러미 417박스(약 1,000만원)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행사는 올해 100주년을 맞은 어린이날을 축하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리적 위축을 느꼈을 어린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어린이날 기념 간편식품 꾸러미를 전달하였으며, 김천 지역의 자활용사촌에서 생산한 간편식품과 전통시장협동조합 청년몰의 식품들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적기업 판로지원과 취약계층지원을 동시에 실현했다. 회사는 필요물품기부, 교육운영지원, 재능나눔미 봉사단체 운영 등 아동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작년에는 아동권리보호를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과 우리 이웃의 눈높이에 맞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가정의 달 맞이 지역아동센터에 간편식품 꾸러미 전달

KEPCO E&C N e w s

2022년 직무입문교육 실시

2022년도 직무입문교육이 본사 1층 국제세미나실에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6일동안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1년 12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등 총 82명을 대상으로 원자력, 에너지신사업, 원자로계통설계 등 5개 분야의 30개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변화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발전소 설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사고 형성을 위한 사전 통합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교육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직군별 난이도를 조정하여 분리 시행하였다. 매년 실시되는 직무입문교육은 국가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입문 단계로 발전소 설계 엔지니어링 개념을 익히고 사업관리의 기본지식을 습득하였다.

2022년 변화관리 리더십 교육 실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2022년 선임급 승급자(Follow-up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12월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직군별 승급자 및 직위자 변화관리 리더십 교육이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다시 실시된다. 이번 선임급 승급자 교육은 2020년 11월 이후 선임급으로 승급한 직원을 대상으로 2박 3일동안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실시되며, 제2차 교육은 6월 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책임급 승급자(Frontier 리더십) 교육은 6월 21일부터 3개 차수가 시작되며, 나머지 6개 교육과정(15개 차수)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변화관리 리더십 교육과정은 약 700여명의 리더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급변하는 에너지시장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변화관리' 모듈을 반영하였다. 회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회사 전반의 조직성과 창출과 개인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사내강사인증교육 실시

5월 26일 3층 교육장에서 2022년 사내강사 인증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전임교수 3명 및 전문강사 8명 등 총 11명을 대상으로 사내강사의 역할 확인, 강의 구조화 및 시각화, 시범 강의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사내강사 인증교육은 사내교수 및 사내강사 운영업무절차 제 11조에 따라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사내강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교재 작성 및 교수 기법 실습을 통해 우수한 사내강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 더 많은 사내강사들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대상 인원을 지속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원자력 환경변화와 한기의 역할에 대한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6월 15일 경희대학교 정범진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원자력 환경변화와 한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의 원자력정책 변



2022년 직무입문교육 실시



2022년 변화관리 리더십 교육 실시



2022년 사내강사인증교육 실시



원자력 환경변화와 한기의 역할에 대한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ISO 품질·환경·안전보건 통합경영시스템 사후관리심사

화와 이에 따른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는 우리회사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엄학기 전력기술원장을 비롯한 직원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변화된 원자력환경, 에너지 소비분포 및 수입규모, 신재생에너지별 환경, 산업분야별 탄소배출과 탄소중립계획, 원자력 수소생산, 신정부의 원자력정책의 한계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원자력 산업 환경변화를 예상하거나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슨 대안을 모색해 왔는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을 통해 되돌아 보고,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한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 의견을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회사의 역할 및 발전방향 설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ISO 품질·환경·안전보건 통합경영시스템 사후관리심사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제표준 품질(ISO 9001), 환경(ISO 14001), 안전보건 (ISO 45001) 통합경영시스템 인증 사후관리심사를 받았다. 심사팀은 우리회사 품질·환경·안전보건 통합경영시스템의 요건, 적용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등에 따른 제반 체계 및 이행 상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통합경영시스템이 최신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사는 1999년에 품질경영시스템을, 2006년에 환경경영시스템을, 2010년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3년 주기로 인증심사와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 국제표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심사를 통해 품질·환경·안전보건 통합경영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인증 받음으로써 고객만족 증진, 조직 성과 개선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위한 견실한 기반을 수립하였다. **E&C**

메타버스 2 : 여행과 건축

지금 보고 있는 세계는 진짜일까? 관점 따라 대답은 달라진다. 몸과 마음이 인식한 정보를 감각의 알파 입자와 생각의 베타 입자로 부른다면 뇌는 이를 합성하여 의식 속에 세계를 창조한다. 물리적 세계를 디지털 정보로 환원하여 새로운 리얼리티를 창조하려는 시도가 메타버스이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현실증강 초현실 어떤 말로 부르든지 정확한 표현은 없다.



메타버스는 분명한 미래 흐름이지만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사업화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정확한 실체가 없기에 기업들은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교육, 광고, 판매, 여행 산업에 접목할 가능성이 높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메타버스가 응용될 사회를 그려보았다.

지선이는 World Travel Center에 예약하였다. WTC는 현존하는 건축물의 3D 실사 정보를 토대로 이를 대형전시관에서 메타버스로 보여주는 기업이다. 모니터를 통해 보는 3D 영상이 아니다. 무엇을 볼까 고민하다가 대영박물관, 에펠탑을 골랐다. 1000평 규모의 섹션 IV관에 들어갔다. 거대 스크린과 3D 홀로그램 영상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보는 위치, 각도, 방향 따라 장면은 달라진다. 대영박물관의 메소포타미아 유적 중 사자 사냥 벽화를 보았다. 투창 던지는 전사, 뛰어가는 노예, 울부짖는 사자가 사바나를 배경으로 생생하게 드러났다. 에펠탑 엘리베이터를 타자 파리 시내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전망대에는 노을지는 시간따라 조명도 서서히 바뀐다. WTC는 해외 명소를 둘러보고 싶은 사람에게 인기이다. 친구들은 다음 달 남미의 아즈텍과 나스카를 보자고 야단이다. WTC는 연매출액 150%로 성장하며 이미 디즈니파크 수익을 넘어섰다.

금강 주위 대지면적 500평, 건축면적 60평의 전원주택을 나눔건축사무소에 설계 의뢰한 지훈은 고글을 끼고 완성된 집을 둘러보았다. 예전 건축 도면이나 모형은 실감 나지 않았는데 상하좌우 토크키만 누르면 화면은 거실, 지붕, 정원으로 이동한다. 천장에 2미터 반경의 선창(船窓)을 내는 지훈의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이제 밤하늘 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베란다 창문은 아르곤가스가 주입된 독일산 이중창문을 원한다고 했더니 그 부분 영상이 잠시 바뀌었다. 부엌 탁자는 대리석으로 변경하고, 2층 층계참 벽면에 소형 창고를 넣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2평 공간이 설계에 추가되었다. 바깥으로 나가 처마 크기와 정원 조경을 확인했다. 자신이 살아갈 집을 미리 체험하고 바로 요구를 변경하면 고글 우측 편에는 비용과 재질 정보가 나타난다. 실제 집과 싱크로율 99%라니 지훈은 만족스러워 시공과 감리를 건축사와 바로 상담하였다.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은 가상 캐릭터로 활동하는 걸 좋아할까, 실물과 가까운 인물로 활동하는 걸 좋아할까? 강의실은 현실을 모방한 교실을 좋아할까, 디지털로 변형된 쇼룸 형태를 좋아할까? 매매가 이루어지면 달러로 지불하기 원할까? 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를 선호할까? 초기에는 다양한 형태와 개념의 메타버스 세계들이 출현할 것이다. 또 범죄를 막기 위해 활동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제3자 공증회사 역할을 누군가 해주어야 한다. 초창기에는 이런저런 혼란이 있을 것이다.

블랙핑크는 녹음한 노래를 들려주는 게 좋을까? 실시간 연동하여 춤과 노래를 바로 보여주는 게 좋을까? 메타버스는 클라우드 네트워킹, 3D 실사 구현, 빅데이터(도시 및 건축물의 구조), 기본 플랫폼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개발초창기 아이디어 각축전에서 대부분 적응에 실패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의 노정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끼리 합종연횡을 맺어 기술 표준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연합할 것이다. **E&C**

오토메이션

유럽은 수학, 물리, 화학의 토대하에 19세기부터 기계문명의 꽃을 피웠다. 이때부터 엔지니어는
오토마타와 오토메이션 꿈을 꾸었다. 저절로 작동하는 기계는 가혹한 노동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실수 없이
임무를 정확히 수행한다. 하늘을 날면 드론, 대양을 항행하는 선박, 자율주행의 자동차로 오토메이션은 차츰 진화하였다.
자율주행(auto cruise)은 항공기와 선박에 예전부터 활용되었지만 최근 완전 무인(無人)을 목표로 바뀌었다.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개발이 한창이다. 여기에는 엔비디아, AMD, 온세미, 퀄컴, NXP가 경쟁 중이다.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가 반도체가 부족하여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기계에서 전자로 전환 중이라는 의미이다. 반도체는 자동화에서 각종 센스와 제어장치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신경마디 역할을 한다. 반도체 기초설계에서 기본 툴을 제공하는 반도체 설계자산(Intellectual Property)과 설계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역할이 꽤 크다.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위상이 앞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도체 설계를 누가 잘하는가? 인텔, 퀄컴, 엔비디아보다 애플이 설계를 더 잘한다고 한다. 애플은 최적성능의 반도체 설계에서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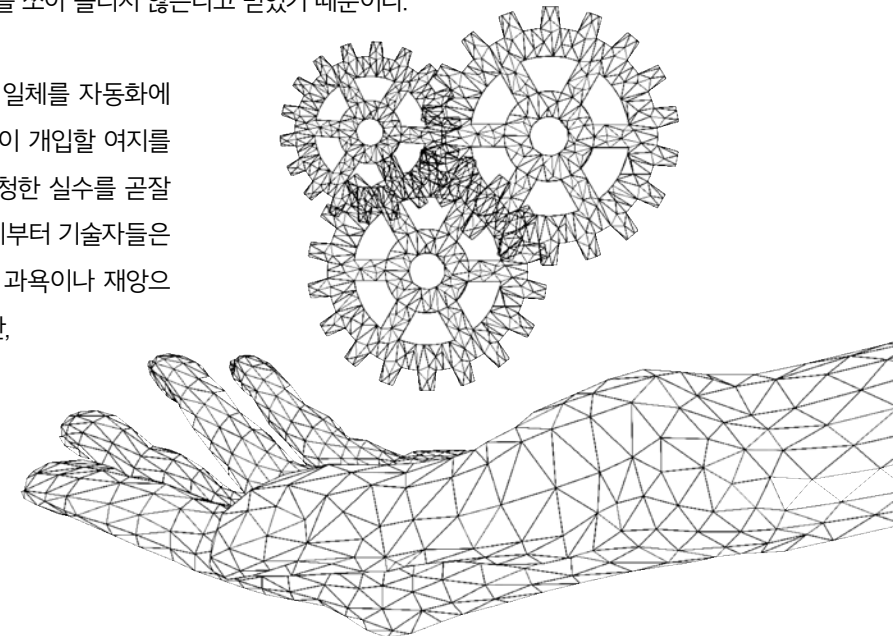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까? 현재로서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OS) 강자로서 오토메이션 프로그램까지 석권하려 한다. 미래 먹거리를 경쟁자에게 넘기지 않으려고 은밀히 작업 중이다. OS와 프로그램을 백화쟁명식으로 기업마다 다르게 개발하면 결국 협력업체와 소비자 모두 골치 아프다. 기술 표준화는 군용할거가 끝날 무렵 알 수 있을 것 같다.

센스 모듈, 지능형 계측제어 회로, Si반도체, 빅데이터, 운영체제, 프로그램, 네트워크 통신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오토메이션이 가능하다. 각 레벨 따라 기능과 완성도가 다르다. 인간의 조종 없이 가능할까? 초기에는 기술적 난관과 시행착오, 사고가 자주 일어날 것이다. 기업의 과장광고(Hypes)를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어두운 그늘이 생겨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오프 레코드로만 알려진 유럽 원전 사고이다. 원자력발전소 내외 급격한 전압강하와 상승이 수차례 연속 발생했다. 그 결과 중앙통제실 계기 정보 모니터 절반 이상이 먹통이 되고 말았다. 운전요원은 당황하였다. 한 명이 기계가 말썽을 부리면 코드를 뿔듯이 발전소를 정지시켜 버리자고 제안했다. 나중 사후분석에서 이것이 신의 한 수로 밝혀졌다. 사고원인은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전압이 요동치면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센스 기기, 전선, 컴퓨터, 모니터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한다. 운전요원의 판단이 사고를 막았다.

1983년 페트로프는 미국이 핵공격 미사일을 날렸다는 컴퓨터 비상경보를 들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공격징후 신뢰도가 높다고 화면에 띄웠다. 이런 급박한 순간 페트로프는 '오작동'이라고 두번이나 보고했다. 그 덕택에 소련은 핵미사일 반격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핵전쟁을 피했고 그는 면직되고 쫓겨났다. 그가 컴퓨터를 두 번이나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선제 타격을 위해 겨우 미사일 1~2기를 쏘아 올리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인간이 수행하던 작업 일체를 자동화에 완전 위임하고 판단케 하기보다는 최종단계 인간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주는 편이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은 멍청한 실수를 곧잘 하지만 현명한 판단을 내릴 때도 적지 않다. 19세기부터 기술자들은 인간을 배제하는 오토메이션을 꿈꾸었지만 이게 과욕이나 재앙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 오토메이션 프로그램을 섰다운 시키고 언제든 '매뉴얼 모드 전환'이라는 비상 장치를 남겨두었으면 좋겠다. E&C



한조각 또 한조각 모여 빛의 마술로 — 스테인드 글라스 캔들홀더

오늘 체험을 위해 평소보다 조금 먼 길을 떠났다. 한기인 4명이 찾은 곳은 구미시 봉곡동 한 골목길 어귀에 있는 '스튜디오 빛'. 그 이름처럼 빛의 공예인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만들기가 오늘 과제이다. 다양한 성별과 나이로 이루어진 오늘의 팀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낼 지 기대해 보았다.



'스테인드글라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당 창문을 장식하는 화려하면서도 경건하고 성스러운 느낌의 성모 마리아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생전 처음 도전하는 초보들! 오늘 도전자들은 투명한 유리잔 위에 유리 조각들을 붙이는 모자이크 방식으로 체험이 이뤄진다. 대략적인 작업방식과 도구 사용법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고 다들 작품 구상에 들어간다. 미리 생각해 온 사우도 있었지만, “그렇게 만들면 오늘 집에 못 갈지도 몰라요.” 선생님의 엄포를 듣고는 본래의 계획을 조금씩 수정한다. 작품의 완성도는 가로세로 1cm크기의 유리 조각을 얼마나 알록달록 예쁘게 배치하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유리를 최대한 자르지 않아야 시간내에 만드는게 가능하다는 선생님의 조언에도 작품성을 조금 포기하는 과감한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리고 다들 한기인답게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을 가진 탓인지 조각 하나를 붙이는데도 심혈을 기울인다.



그렇게 작업에 열중하는 동안 공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니 여러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그야말로 빛의 예술, 빛의 공예다. 특히 전등에 씌운 전등갓이 형형색색의 빛을 주변에 흠뻑린다. 오늘 수강생들은 글라스 사이를 석고로 채우지만 전등갓과 다른 고난도 작품들은 땀납으로 유리 사이가 채워져 있다. 선생님께 제작법을 물어보니 유리판에서 원하는 모양대로 유리를 잘라서 그 조각들을 테이프로 고정하고 그 사이를 땀납으로 채워 넣는 쉽지 않은 공정을 거친다고 한다. 무엇보다 원하는 모양대로 유리를 자르는 것이 난도가 높다고 한다.



다시 작업대로 돌아오니 어느덧 각자의 작품이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형광등 아래에서는 그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필자의 눈에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각자의 작품들을 비추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 빛이 통과되어 책상에 비치기도 하고 유리 조각들이 하나하나 빛을 내기도 한다. 완성 후 모습을 머릿 속에 그려본다. 얼추 유리를 붙이는 작업이 완료되자 백시멘트를 바른다. 시멘트가 금방 굳어버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조각 사이사이로 퍼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유리 조각이 떨어지기도 해서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선생님 도움으로 하나 둘 작품을 완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포토타임, 다들 자기 작품을 들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물론 단체 사진도 빠지면 안 된다.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조금씩 저물고 있지만, 여전히 밝이 환하다. 그래서 작품 시연은 집에서 하는 것으로 기약하고 오늘 체험을 마친다.





김주송 사원 (원자력기술실)

운 좋게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데이클래스 수업에 참여하여 뜻깊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세계사 책에서만 보던 스테인글라스라는 용어가 낯설었지만,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것을 듣고 유리 조각을 붙이고 떼고를 집중하여 반복하다 보니 점점 어제 만났던 친구처럼 친근하고 익숙해졌습니다. 유리컵에 조각 유리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붙이는 작업을 하였는데 처음 시작할 때 디자인 구상을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결정한 후에는 유리 조각을 집중해서 하나하나 붙이고 약 2시간 반 정도 작업하였는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유리를 붙이는 동안 잡생각 없이 오로지 하나에 집중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리의 색도 다양하게 선택하여 완성된 작품에 빛을 비추었을 때 굉장히 다채롭고 예쁘게 보였습니다. 작업하면서 개개인 성격도 어느 정도 고찰할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보다는 꼼꼼히 작업하는 성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가 난무하는 요즘 세상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자신의 성향 또한 돌아보는 이 체험이 큰 매력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 감사드립니다.

Stained glass



이수한 사원 (인사노무처)

원데이클래스 선정 통보 받고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 작품을 보며 구상하였지만, 막상 자리에 앉아 작업하니 '초보의 객기였구나' 생각하였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자랑하는 꽃무늬도 화려하지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여러 가지 색 조합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처음 디자인을 포기한 채, 완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조그맣게 잘린 유리 조각 다듬는 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 유리 조각을 이리저리 원하는 곳으로 붙이는 것은 또 얼마나 고민되는 작업인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계획했던 작품은 아니지만,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내 작품! 다음 달이면 기숙사에서 나와 첫 자취를 하는데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그날의 기억을 간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수철 부장님과 문경님 차장님 그리고 김주성 사원님과 함께 하여 더욱 의미로운 하루였습니다.



문경님 차장 (경영혁신실)

우연찮은 기회에 참가한 원데이클래스. 난생처음 접하는 스테인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뭐든 흥미를 느끼고 있던 터라 주저하지 않고 신청하였습니다. 조그만 유리를 더 작게 더 잘게 쪼개는 작업이 쉽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그 손 한번 더 가는 작업이 섬세한 디테일을 표현하여 훨씬 작품성을 높인다는 것! 다 마치고 다른 사람들 작품과 비교해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손이 느린 내가 웬일로 첫 번째로 끝낸 게 이상하더라니... 자르고 붙이고, 원하는 디자인을 하면서 거기에 색색의 작은 유리 조각들을 퍼즐 맞추기 하듯 최대한 꼼꼼하게 붙이고 백시멘트 마무리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정교함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 만들기도 이처럼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대충 마무리해 버리면 미흡했던 부분이 두둑두둑 후회됩니다.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집에 와서 완성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불을 켜 보았는데 세상에나! 그냥 보던 것과는 완전히 판판으로 멋진! 나만의 작품에 혼자 자백하였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온다면 이제 정말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수철 부장 (기계배관기술실)

스테인글라스(Stained glass)하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교회의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아름다움에 와~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지요. 그런 신비함을 직접 체험해 보는 공방 클래스에 참가했습니다. 조각유리캔들홀더, 스테인글라스와 가우디의 모자이크 기법이 혼합된 방식이라고 할까요? 여러가지 색상의 유리를 직사각형, 삼각형,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접착제로 붙이고, 마르면 모자이크 사이의 간격을 백시멘트로 채우면 됩니다. 커팅나이프를 이용해서 유리에 실선을 긋고, 실금을 집게로 눌러 압력을 주면 유리가 절단되는데 이 작업이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평사리 부부소나무> 소나무, 들판, 호수, 강, 산, 노을의 풍경. 검정, 노랑, 파랑, 연파랑, 초록, 빨강 색상의 조화. 느낌 오시나요? 아니라구요 ㅋㅋ 그래도 한땀한땀 집중해서 소장품을 완성했어요. 원더풀 데이 E&C





연꽃이 유명한 연화지 옆 돈가스 맛집 교동 872

동탄에서 출퇴근하던 우리 팀 차장님이 김천혁신도시 오피스텔로 이사 했다.
김천으로 귀환을 환영하기 위하여 소소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연화지 인근 식당
중에서 늘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눈도장 찍어두었던 '교동 872'에 다녀왔다.

연화지에 주차하고 골목으로 들어가니 아담한 식당이 나왔다. 빨간 전화기 부스, 버스 안내판,
나무 벤치 등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둔 마당에서 사진을 한 컷 찍고 내부로 들어갔다. 실제 지
번 주소가 '김천시 교동 872번지'인 이곳은 단독주택 느낌이 들었다. 실내로 들어가 보니 벽에
아주 오래된 보일러 온도조절기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가정집을 개조한 모양이다. 저
녁 오후 6시 반 조금 넘은 시간 도착했으나 벌써 만석이다. (가기 전에 예약은 필수!) 마지막
남은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다.

교동 872에서는 돈가스, 카레, 연어덮밥이 특기이다. 어떤 것을 먹을지 고민하다,
다양한 메뉴들이 조금씩 같이 나오는 '872카츠정식세트'와 '872교동정식세
트'를 시켰다. 메인메뉴 나오기 전 맥주 한 잔씩 주문하였다. 시원한 맥주
한 모금 마시니 하루 피로가 싸-악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오늘 운전대를
잡은 과장님은 콜라를 드셨는데, 맥주잔에 따라 드시면서 흑맥주 먹는
기분으로 마신다고 하셨다.ㅎㅎ



나는 교동정식세트를 선택하였다. 872특제소스를 이용한 닭다리살 튀김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치즈카츠, 해시 브라운, 미니 우동 등이 곁들여졌다. 혼자 다 먹기 양이 많을 정도로 푸
짐했다. 특제소스로 만든 닭다리살 튀김 요리는 매콤달콤하면서 간이 적당했다. 다만 평소 매
운 것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유의하자! 같이 나온 치즈카츠나 해시 브라운은 누구나 다
아는 맛있는 맛! 미니 우동과 조화를 이뤘다.

카츠정식세트는 안심, 등심 돈가스와 카레가 함께 나오는 메뉴였는데, 선택한 사원님 표현으
로는 고기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아주 맛있었다고 한다. 매콤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먹고 싶
다면 교동정식세트를, 돈가스가 더 땅긴다면 카츠정식세트를 추천한다. 다만 식당 내부가 협
소해서 5명 앉는 테이블이 없었다. 직원분이 2명, 3명 따로 앉아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맛집 탐
방을 하러 와 함께 앉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4인 테이블에 의자를 하나 붙여 앉았다. 트레이
에 음식이 나왔던 터라 테이블이 꽉 찼다. 웅기종기 붙어 앉아 먹으니 음식 나눠 먹기도 수월
하고 더 화목한 분위기였다. 오히려 이게 좋아!

식사를 마친 후, 소화도 시키고 구경도 할 겸 연화지를 걸었다. 최근 부쩍 날씨가 더워진 탓인
지 산책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연화지는 벚꽃 명소로, 여름철 연꽃 구경하기 좋은 장소

이다. 아직 연꽃 개화 시기가 아니
라 꽃은 보지 못했지만, 이전에 벚
꽃 구경 왔을 때와는 다르게 연잎
가득한 저수지를 볼 수 있었다. 저
수지 한 가운데에는 분수가 나오
고, 해가 지면서 핑크빛 하늘이 연
출되었다. 자동차로 15분 거리인 이
곳으로, 맛있는 밥 한끼도 하고 산
책도 하러 오면 어떨까. E&C



파친코 원서 읽기

미국인이 사랑하는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국내 번역본이 아주 많다. 번역이 미덥지 않다고
또 누가 번역하고 나중에는 '완역본' 타이틀까지 내 걸고 나온 책도 있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모두 실패라는 반증이다. 명작을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번역에 있다.

우리말로 읽으면 주마간산 격이 되고 원서로 보면 낱말의 꽃, 표현의 나무를 음미하면서 천천히 소요하
는 정독에 가까워진다. 외국어는 장벽이 아닌 디딤돌이라고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은 분에게 방법을 알려
드린다.

토플 고득점자나 영문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조건들이 결코 유리한 고지를 보장하지
않는다. 학교와 교과서는 규범문법(School Grammar)과 표준어를 가르치는 곳이다. 공통문형과 기본단
어만 선별하여 알려준다는 뜻이다. 이는 불순물을 걸러내고 또 걸러낸 100% 증류수와 같은 언어이다. 이
런 순수한 물을 계속 마시면 사람은 실제로 죽는다. 전공 또는 학술 서적은 개념만 파악하면 수월하게 읽
히지만 오히려 동화책, 소설은 턱턱 막히는 곳이 많다. 학교에서 배운 정형적 영어가 일할이면 비정형적
생활언어는 구할을 차지한다. 보통 사람은 교과서처럼 말하지 않는다.

처음 원서로 읽으면 모르는 단어로 가득하다. '걷다(walk)'와 '뛰다(run)' 유의어를 노트에 적어보면 백 개
이상 나온다. 렉시콘(Lexicon) 사전이 따로 있는 이유이다. 이런 단어들은 본래 모양과 소리를 함께 담고
있다. 우리말이 의태어, 의성어, 부사를 나열해야 한다면 영어는 동사만으로도 표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는 발을 질질 끌며 걸어 나에게 왔다"는 "He shuffled to me."로 간결히 끝난다. 말하다, 먹다, 마시다
등의 기본동사에 따르는 유의어와 친해지면 원서 읽기가 한결 실감이 난다. 대부분 만화책에 나오는 생동
하는 단어들이다. 이런 어휘들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한국인은 구절동사(Phrase verb)를 만나면 어려움을 겪는다. 구절동사는 원어민이 배운 티내지 않고 쉽
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일상 표현이다. 유치원 아이들이 쓰는 말투라고 생각하여도 좋다. 존 스타인벡은
Get, Put, Take를 전치사와 결합한 동사만으로도 좋은 소설을 썼던 작가이다. 슬프게도 사전을 찾아보면
수십 개 뜻과 용례로 뻘뻘하다. '연기하다'고 하면 의례 'postpone'를 떠올리지만 구절동사로 'put off'
이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떼어내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다는 의미이다. 이런 원초적 의미와 전치사의 공
간상 위치는 머릿속에 그림으로 나타난다. 구절동사에 조금씩 익숙해지면 일종의 感覺이 생겨나고 구어
체와 친숙해진다.



원서는 적당한 난도의 책을 잡아야 완독할 수 있다. 영
어 고유한 표현으로 가득한 책은 아무래도 힘들다. 한국
을 배경으로 우리 문화와 정서를 영어로 표현한 책이 좋
겠다.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
즘 떠오르는 '파친코'를 추천한다. 이민진 작가는 파친코
에서 '소반'을 미국인에게 말해 보았자 뜻이 통하지 않
을 것 같아 'portable dining table'이라고 풀어 표현하
였다. 번역에는 이게 '휴대용 식탁'이라 직역되었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면 재미난다. 부산 자갈치 시장과 영도
를 배경으로 소설은 전개된다.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
가 5개 이하이면 구태여 사전을 찾지 않는 게 덕이다. 문
맥으로 그 뜻을 짐작하면 90% 이상 맞다. 자기 짐작을
믿고 어지간하면 사전을 들추어 보지 않는다. 또 사전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라면 또 다
른 책에서 만나 뜻을 알게 된다.

원서로 읽으면 무엇이 좋은가? 생생한 원물 그대로를 접
할 수 있다. 따로 외국어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즐기면서
저절로 공부가 된다. 작년 일본어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책'과 '어린 왕자'를 읽었다. 간혹 외국어에 따라 의미나
느낌이 달라지는 경험을 한다. 슷타니파타, 노자도덕경,
성경은 여러 언어별로 또 버전별로 다양하게 수집한 적
이 있다. 왜 똑같은 내용을 여러 다른 언어로 읽는가? 정
확하게 말하는 사람, 아름답게 말하는 사람. 심장한 은
유로 말하는 사람도 있듯이 여러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그 뜻을 헤아려 볼수있기 때문이다. E&C

남도 끝자락 진도에서 마주친 운림산방



전성환 계측제어설계그룹 처장 / 갤럭시 노트20

진도는 제주도, 거제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라네.
진도대교를 건너니 섬인지 육지인지 모를 정도로 큰 섬, 진도.
풍광이 너무나 아름다워 조용히 거닐다가 한 컷, 운림산방.
조선 후기 남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의 예술혼이 서려 있다네.

직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보에 소개된 분께 원고료를 제공합니다.

비움 속 행복 찾기

얼마 전 큰 맘 먹고 대청소를 했다. 옷과 수납장, 책장에 쌓인 물건이 두 세 보따리 족히 넘게 나왔다.
묵혀두었던 헌 옷과 식기, 생활 용품 등을 과감히 버렸다. 어린 시절부터 물건을 아껴야 한다는
강박증, 버리기 주저하는 머뭇거림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 주부가 되고부터 설명하기 힘든
사명감(?)에서 더 버리지 않는 생활이 굳어버렸다. 한 달 내 혹은 1년 사이 내가 썼거나 혹은 쓸
물건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보관이 차츰 짐스럽게 느껴졌다.

정리·수납·폐기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영상 채널에 사람들이 몰린다. 몇 년 전부터
꼭 필요한 것만으로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3년째 지속하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불필요한 물건에 둘러싸인 삶이 과연 행복할까?” 그런 물음에서 출발해서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
최소한의 물건으로 집 안을 비우고 나니 전보다 더 삶이 여유롭고 행복해졌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물건마다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방식은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이다.

돌이켜보면 소유의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신앙처럼 뭔가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다. 반대로 불행한 이유는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정작 갖고
싶은 물건을 손에 넣어도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물건에 철저히 포위된 삶, 치우고 치워도 끝이
없는 집 안은 결국 삶을 빼앗겨 버리는 일이다. 물질의 과도한 소유와 집착으로 참된 행복과 자유가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소유를 위한 살벌한 경쟁터에 다시 빠지지 않으려다.

채우는 삶보다 비우는 삶이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이젠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비움 속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 나의 비움 속 행복 되찾기 프로젝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E&C**



그리 멀지 않은 여행 수생식물학습원

여느 날처럼 생각 없이 SNS를 넘기다가 사진 한 장에서 시선이 멈췄다. 언덕 위 작은 성이 산세로 둘러싸여 있었다. “아, 가고 싶다. 분명 유럽 어딘가겠지” 생각하며 감탄과 부러움, 체념이 섞인 혼잣말을 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는 해외에 떠날 엄두조차 못 냈으니, 이런 이국적인 풍경을 마주할 때면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하염없이 쳐다만 보는 꼴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 감탄을 자아낸 이곳이 그리 멀지 않은 옥천에 있었다. 그 정도면 아주 오름직한 나무였다.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설렘을 안고 온 가족이 나들이를 나섰다. ‘수생식물학습원’이다.



Heaven Garden



“천상의 정원”이라는 뻘한 수식어마저 잘 어울리는 곳

충청북도 옥천군 수생식물학습원을 찾아가는데,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꽤 올라가야 했다.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즈음 마지막 고개를 넘자, 탁트인 대청호가 깜짝 선물처럼 펼쳐졌다. 수생식물학습원은 초록산과 푸른 대청호에 둘러싸여 있다. 높은 산과 넓은 호수 곁에 있어서인지 더운 날이었는에도 바람이 제법 불었다.

수생식물학습원에 입장해서 화살표 팻말을 따라 산책하면, 공간 전체를 한 바퀴를 돌수 있다. 30~40분이면 다 돌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크기의 정원이라, 아이와 함께 걷기도 좋았다. 수생식물을 보존하는 곳인 만큼 곳곳에 처음 보는 식물들도 많았다. 야외 정원뿐 아니라 실내 온실도 운영 중이었고, 그 안에서 여러 수생식물이 재배되고 있었다.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이렇게 가꾼 손길을 상상했다. 세심한 관찰,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적당한 돌봄, 성실한 노동, 가장 아름다울 때를 그저 지켜보고 누리는 태도 같은 것도 함께 떠오른다. 이 정원을 둘러보는 내내 아름다운 자연뿐 아니라 정성 어린 손길에 감탄했다.

산책길을 따라가다 보면 호수와 초원, 높은 바위를 경험할 수 있고, 눈에 담는 모든 풍경이 절경이다. 이곳의 풍경이 유독 더 그림 같은

이유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유럽에서 볼 듯한 이국적 주택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동화 속 작은 성의 모습이 눈앞에서 재현된다. 건물과 정원이 절벽과 언덕의 지형을 그대로 살린채 지어져 더 특별했다. 이 건물 앞에서 남긴 사진은 꼭 유럽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같아 오랜 기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마음에 위안을 줬다.

들어가는 입구에 “천상의 정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조금 과한 타이틀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그 수식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무언가 경험하고 정말 좋을 때는 ‘좋다’라는 뻘한 표현 외엔 생각나는 게 없을 때가 있다. 이곳도 ‘천상의 정원’이라는 뻘한 표현 밖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좋았다.

호수를 바라보며 쉬는 카페더레이크

수생식물학습원 내에 호수를 바라보는 카페 ‘카페더레이크’가 있다. 운치 있게 나이가 든 카페 건물도 멋있지만, 그늘막이 쳐진 야외 자리에 앉기로 했다. 커피 한잔하며 호수를 바라보다 보니, 지금 이 순간 진짜 휴식을 누리고 있다는 감각을 만끽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느낀 심이었다. 이곳의 여름 풍경을 즐겼는데, 다른 계절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절로 궁금했다. 가을에 다시 찾기로 하였다. **E&C**

부서간 협업 업무가 일상화된 요즘 부서간 갈등 빈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여러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60% 이상은 “현재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내부에 부서 간 갈등이 존재 한다.”고 답했다. 또한 부서 간 갈등으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고 있다.”고도 했다. 그 손실로는 부서 간 편 가르기로 인한 업무 협조의 어려움, 부서 간 마찰로 인한 퇴직과 이직 등의 인력 유출, 생산성 및 매출에 대한 악영향 등이다. 또한 부서 간 갈등으로 인한 부서 이기주의 및 *사일 로(Silo)화 심화로 A부서가 하는 일을 B부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회사 내 시너지 효과가 감소되고 내부역량과 에너지를 소모적으로 낭비하게 되어 회사의 경쟁력 저하 를 초래하게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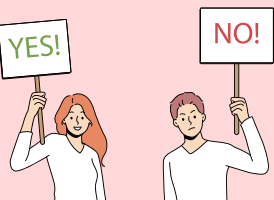
*Silo : 곡식이나 사료를 저장하는 굴뚝모양의 원통형 창고. 조직 간의 경계를 사일로처럼 벽으로 분리하여 자신의 속한 부서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에서 유래

Help
Explanation
Relevance
Official Paper

HERO 대화로 부서간 업무 협업도 유쾌하게!

따라서 부서 간 갈등관리는 원활한 협업과 협조를 통한 조직 성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런데 각 부서는 KPI등 이해관계가 다르고, 업무의 우선순위,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부 서간 협업 과제에서만큼은 특히 배려와 매너가 담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언제 타 부서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 거절하고 싶었는가? 실제로 업무 요청을 거절 하고 싶을 때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본인의 일 까지 떠넘기는 것 같을 때’(59.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당연하게 지시할 때’(53.6%), ‘퇴근시간쯤 요청할 때’(49.8%), ‘배경 설명 없이 자기 용건만 말할 때’(40.7%), ‘바쁘다며 처리 시한을 급하게 잡을 때’(39.1%), ‘본인의 것을 우선순위로 요청할 때’(31.8%), ‘상사의 지시라며 무조건 하라고 요청할 때’(26.6%) 등의 순위로 꼽았다. 또한 이러한 거절로 인해 응답자의 88.1%는 부서 간 비협조로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타 부서의 협조 요청 시
이런 태도 때문에
‘NO’하고 싶다



본인의 일까지 떠넘기는 것 같을 때	59.6%, 복수 응답
당연하게 지시할 때	53.6%
퇴근시간쯤 요청할 때	49.8%
배경 설명없이 자기 용건만 말할 때	40.7%
처리 시한을 급하게 잡을 때	39.1%

필자 역시 위의 5가지 응답에 모두 공감함과 동시에 뜨끔하기도 하다. 과연 나는 ‘타부서와의 업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얼마나 역지사지 했는가?’하며 성찰하게 하는 조사 결과이다.

협조 요청 시 타 부서를 ‘Assistant’가 아닌 ‘H.E.R.O’로 만들어라!

또한 타 부서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때, 요청 받는 사람들이 기꺼이 협조 하겠다고 대답한 이유로는 ‘지시가 아닌 정중하게 요청할 때’ (59.3%,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협조가 필요한 이유 를 명확히 알려 줄 때’(50.5%), ‘필요한 것만 체계적으로 요청할 때’ (45.3%), ‘처리 시한의 여유를 두고 요청할 때’(34.2%), ‘정리된 문서 등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22.7%)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타 부서에게 업무 협조 요청 시 정중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공문으로 공식화한다면 타 부서의 협 조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지원 부서의 도움으로 업무가 잘 처리된 상황이 라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더 이상 상대 부서를 보조원(Assistant)이 아 닌 우리 부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영웅(Hero)으로 대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앞으로 타 부서에게 업무 협조 요청을 진행할 때 아래의 HERO 프로세스를 적용해 보자.

<타 부서 업무 협조 요청을 위한 HERO 프로세스>	
Help (도움 요청)	“○○○과장님. A부품 관련해서 고객과 협의하신 사항과 납기 일정을 이번 주까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번 달에 특히 휴가자들도 있고 출장자들도 많은 상황이라 납기 일정을 맞추려면 하루 빨리 스케줄링을 조정해야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planation (일의 목표, 배경, 중요성)	“아시다시피 00고객사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다음 프로젝 트 수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라 고객과 경영층 모두가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Relevance (업무 연계성+지원 사항)	“과장님께서 주축이 돼 진행하고 있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진행상황에 대해 빠르게 피드백 주시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자료 정리에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제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Official Paper (공식화+감사표현)	“바쁘신데도 매번 업무 처리를 잘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 연컨플릭(박효정 외, 2020, 복인사이트)

여러분이라면 위와 같은 업무 협조 요청을 받는다면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들 것 같은가? 필자가 기업 현장에서 많은 구성원에게 질문해 보면 “더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 “아무리 바빠도 대강 넘기기는 힘 들 것 같다”, “기존보다 좀 더 해당 업무를 챙길 것 같다”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H.E.R.O 프로세스로 업무 협조를 통해 일을 진행하고 또한 결과를 상대 부서에게 공유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어떨까? 협조해 준 부서나 사람들이 진정한 히어로가 되어 앞으로 더욱 좋은 부서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90% 심리로 움직이고, 심리는 90% 말로 움직인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타 부서와 소 통할 때는 특히 상대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고, 상대의 협조를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소통의 H.E.R.O 언어를 사용해 보자. **E&C**

기술분석의 10가지 법칙

기술분석과 가치투자는 투자의 양대산맥이다. 대략 합쳐 15%의 적중률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30%는 각종 뉴스와 리포트가 영향을 끼친다. 마지막 40%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장영역이다.

기술분석은 차트의 패턴을 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그 해석이 보고 싶은대로 보이는 것이라 조금 애매하다. 그렇지만 한 분야에서 50년 공력을 쌓은 백전노장 말이라면 한 번 귀 기울여 볼만하다. “Bob Farrell’s 10 Rules”, 반드시 알아야 할 10개의 기술분석 원칙을 번역하고 약간의 설명을 덧붙였다.

1. 시장은 장기적으로 평균에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2.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 나중에 반대쪽으로 그만큼 크게 움직인다.

: 인덱스, 종목, 주가는 시계추처럼 양쪽으로 움직인다.

3. 증시에 새로운 것은 없다. 과도현상은 오래가지 않는다.

: 잘나가는 종목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지만 투기는 오래가지 않는다. 일반 투자가는 이번에는 과거와는 뭔가 다를 것이라 믿지만 이때가 위험하다.

4. 가파르게 오를 때 혹은 속절없이 무너질 때는 그게 당신 생각보다 기간이 훨씬 오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 주식은 기대보다 더 높이 오르고 예상보다 더 낮게 떨어진다. 달리 주가가 횡보할 때 이게 조정받는 시기라고 속단하지 말라.

5. 일반 투자가는 꼭대기에 사지 바닥에서는 절대 사지 않는다.

: 이상하게 통계적으로 늘 그렇다.

6. 공포와 탐욕은 장기 투자 결심보다 훨씬 강력하다.

: 주가가 오르면 자만에 빠지고 떨어지면 절망에 휩싸인다. 따라서 최초 투자 계획도 흔들린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서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라.

7. 전체 종목의 진폭이 넓을 때 시장은 강세장이고, 몇 개 우량주로 좁혀질 때 시장은 약세장이다.

: 시장이 좋을 때 중소형주, 대형주, 우량주 시장 전체가 골고루 오르지만 일부 우량주만 집중하여 오를 때 시장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마땅하다.

8. 약세장은 3가지 단계로 나타난다. 급격한 하락 - 반사적 반등 - 기나긴 하락이 지속된다.

: 마지막 단계는 아주 서서히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주식의 가치가 훼손되어 점점점점 조금씩 무너지고 만다.

9. 모든 주식 전문가의 예측이 일치하는 때가 바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10. 강세장이 약세장보다 흥미진진하다.

: 주식이 오를 때 신명 나서 모두 비슷한 진단을 하지만 반대의 약세장은 재미가 없고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해진다.

강세장에는 바보도 돈을 벌고 약세장에는 천재도 돈을 잃는다. 시장 흐름을 잘 타면 무사하겠지만 벗어나면 괴롭다. 2021년 11월 주식 다 팔고 떠나서야 했는데…….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주가는 서서히 조금씩 오르다가 짧은 시간 녹아내린다.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면 좋겠지만 그걸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적다. 헛지펀드 또는 스마트 머니도 올해 큰 손실을 입었다. 밥 패럴 No. 5와 No7 법칙, 일반투자가는 최고점에서 더 오를 것이라 믿고 사고 최저점에서 공포에 휩싸여 사지 못한다. 종목에 큰 편차 없이 인덱스가 조금씩 오르면 좋은 현상이고, 어떤 특정 종목만 편중하여 오르면 나쁜 징조라는 시장 판단도 참고하자. **E&C**



매뉴얼 대로 하라! 울곡119안전센터 강종서 센터장

한기 본사에 불이 나면 강종서 센터장이 먼저 현장에 선착하여 화재진압을 지휘한다. 감시초소(GP) 역할과 소방관 투입을 동시에 하면서 건물 진입 루트와 시점도, 불길 잡는 물대포 방향도 그가 결정한다.

강 소방경(무궁화 돌)은 현장에는 항상 묘한 긴장감이 흘러 아드레날린이 쏘는 심장 박동수를 매번 느낀다. 2008년 김천 대광동 코오롱 유화 화재 현장에서도 그랬다.

폐놀수지 드럼통이 연신 뱅뱅 터지는 불바다가 삼시간에 연출되고 소방대원 200명, 소방차 270대가 긴급 투입되었지만 거센 불길이 인근 창고까지 덮쳐 결국 페인트공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다.

거기서도 그는 있었다!



“김천 한전기술과 구미 LG공장은 경북지역에서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한 유일한 2개 기관입니다. 평소 매뉴얼 대로 훈련하여 화재 시 능란히 대처해야 합니다.” 흰출한 이마,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 갈매기 날아가는 무사 인상이다. 말투에 힘이 들어간 이 타입은 생각과 행동이 동시에 들어간다. 새로 지은 깔끔한 울곡119안전센터를 둘러보니 1층은 사무실과 접한 개별 월락커와 사물함에는 방수화, 소방장비가 가득했고 더플백 대신 큰 스포츠백이 옆에 가지런히 놓였다. 2층에는 구급대원 대기실(여성전용 별도), 구내식당, 체육관과 샤워실이 있다. 심신안정실은 안마의자와 대형 TV가 놓여 긴장을 푸는 곳이다. 화재진압팀과 구급팀 합쳐 대략 30명 인원이 근무하는 살림터를 보았다.

1년 단위로 기산하면 화재신고 출동은 600건, 실제 진압 활동은 200건 비율이다. 쓰레기 소각, 논밭 잔불 등 연기가 나면 불났다 싶어 들어오는 화재오인 신고가 많다. “그래도 우리는 출

동 한다!” 그런 책임감으로 움직인다. 119 구조구급 활동하면 텔레비전에서 말벌 집 치우기, 야생동물 구조, 산행 조난자 이송을 자주 방영했다. 이쪽 신고는 계속 상승 중이다. “주먹만한 벌집에 이미 벌이 떠난 빈집도 있고, 부부싸움 후 아파트 문이 잠겼으니 열여달라는 구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해요” 더욱이 코로나 시절 확진자 이송도 맡았다. 어느 범주에서 119를 불러야 할지 정확한 감은 없지만 필요 장비를 구비하는 측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대민봉사, 구호 차원의 민원은 꾸준히 늘어나고 묵묵히 해결하는 사람이 있기에 세상은 굴러간다.

불이 번지는 패턴, 화점(火點), 불길 흐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화재조사와 감식, 대응과 대피는 이와 연관되어 있다. 강 센터장은 교육과 실전을 통해 배웠고 일본 연수도 거쳤다. 화재 나면 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으로 대피해야 하는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질식을 피하려 수건에 물을 적시는 이유는 수건의 미세공간 물방울이 독성을 중화하기 때문이라 한다.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잇달아 하였다. “119 전화하면 누가 받아요?”, “도청 종합방재 상황실입니다.” 119구조대는 산의 지형과 루트, 소방관은 건물 내부구조를 머릿속에 사전에 숙지해 둔다고 한다. “산불이 나면 소방 헬기가 어디서 날아오나요?”, “대구 KT 비행장입니다.” “말벌에 에프 킬라를 뿌리는가요?”, “별도 강력 살충제를 살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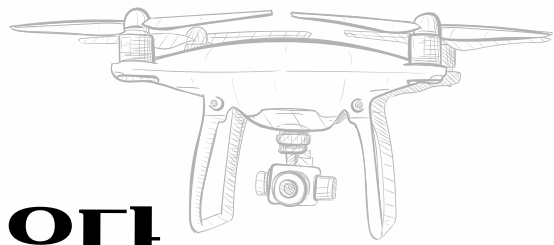
센터장은 포항, 성주, 문경, 경북도청을 비롯한 여러 근무지를 돌았다. 김천 남면이 고향이라 울곡에 터를 잡고 보니 동창도 만나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소방서야구단에서 투수와 외야수를 보았고 당구, 볼링, 골프도 좋아한다. 동그란 ‘구’ 들어가면 뭐든 적당히 한다. 요즘 초중고 학생을 체육관에 불러 모아 응급조치, 화재 대피도 가르치느라 늘 바쁘시다. 교육도 소방관의 임무이다.

매뉴얼, 프레임, 절차, 대응이란 키워드를 소방경은 거듭 반복하였다. 타고나면 천성이고 길이면 후천이다. 30년 세월 소방에 몸을 담으니 자연스레 새어 나오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티란 게 나잖아요.”하고 웃는다. 현장대응 매뉴얼과 실제 훈련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런 울곡119안전센터를 이웃사촌으로 두어 든든한 마음이다. 출동시간이 더욱 빨라졌을 것이다. 21일 주기근무는 일주일 주간, 이주일 야간 근무를 교대로 서는 이쪽 방식이다. 그런 불-침-번이 건너편에 있다. 늘 고마운 분들이다. 



드론으로 김천을 띄우다

2021년 12월31일 한기에서 퇴직 5년 전, 2년 전 퇴직자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후반기내 인생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시기가 왔다. 현직에 있으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무것도 정할수도 없었다. 당해년도 퇴직 전에 인재교육개발원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그중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드론"이었다.



드론에 대하여는 아는 바도 없었지만 인터넷을 검색하고 자료를 뒤져본 후 곧 바로 학원 등록을 마치고 국가 자격증시험에 도전하기로 하였다. 드론학원을 다니면서 한전기술의 관리본부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 알게 되어 안 그래도 전혀 알지 못하는 드론분야인데 서로 간에 조금은 위안을 받으면서 함께 드론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의 도전과목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1종(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은 약 4개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과정 1종(2박3일 집체교육 및 필기시험)을 약 6개월만에 취득하였다.

특히 초경량비행 조종자교과 과정은 실기시험이 요구하는 시간을 채워야 한다. 또한, 항상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환경이므로 손끝 촉감과 고도의 정신집중이 요구되어 퇴직시기에 일어나는 느슨한 정신력과 체력을 극복해야 한다.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어느정도 자신감이 생기자 보니 친한 수강생들끼리 합격을 하면 우리 같은 인성과 실력이면 앞으로 드론을 배우는 교육생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과 지식으로 가르쳐 보면 어떨까하여 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한 농담이 진담이 되어 김천혁신도시 인근에 "카카오드론"학원이 탄생하였다.



카카오드론은 2021년 11월 1일 컨테이너 3동에 사무실, 휴게실, 창고 겸 화장실 등 법적 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공동대표(고한립, 경대현, 김충섭)체제로 출범하였다. 2022년 6월 현재까지 무인멀티콥터(1종대형) 교육생 4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교과 과정 1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다. 우리는 약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교육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도전 정신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천시에서 진행중인 융복합 드론 플랫폼 구축사업 등 드론관련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한 국가드론 실기시험장(표준규격 4곳) 확보, 드론 비행시험 테스트 베드 지원시설을 위하여 개령면 덕천리 일대 약 65,213㎡(22.1.10~24.1.9)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는 한기인이기 때문에 퇴직하기 전부터 항상 한기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렇듯이 한전기술이라는 공공기관이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한전기술은 이 지역에서 주어진 막중한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한전기술의 고충빌딩 자체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인정받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전기술이 가진 한기인의 의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야 한다. 이제 시작한 카카오드론에 종사하는 우리는 주어진 일과 역할에 대하여 김천지역 발전을 위한 다면 주저없이 어떤 일에도 도전하고자 한다.



한기인들이여!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주저하지 말고 우리 카카오드론을 통하여 김천을 하늘로 띄우기 위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십시오. 우리 카카오드론은 항상 여러분의 편안한 심터와 놀이터가 될 터이니 부담없이 언제나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SC**



김천 100명산 완등 이태용부장

- 2022년 첫 완등자



김천시는 시(市)승격 70주년 기념으로 2019년부터 김천 관내 430여개 산에서 명산 100산을 선정하여 탐방하는 행사를 4년째 시행하고 있다. 참여 열기가 매년 높아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한전기술산우회에서 첫 김천100명산 2022년 첫 완등자가 탄생했다. 김천100명산 클린산행단 단원인 이태용 부장이다.

이태용 부장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천100명산 탐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부인 및 친구들과 김천100명산을 탐방하였다. 올해 1월 25일 울곡동 봉화산을 시작으로 4월 16일 농소면 백마산 정상에서 한기산우회 회원, 회사동료와 함께 100명산 완등식을 가졌다.

완등자 이태용 부장은 1989년 6월 ROTC 25기 육군중위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마치고 공채 10기로 입사하여 34년간 성실히 근무하였다. 2023년 7월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앞두고 체력은 국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김천산줄기 바로알기 일환인 김천 100명산을 입사동기이자 산우회 회장 김봉환(59)에게 소개받고 김천 명산을 탐방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첫 완등자로서 "김천을 알기 위해서는 각자의 방법이 있지만 저는 김천100명산 도전이 그 시작이고, 김천 100명산을 통해서 얻은 것은 강인한 체력이고, 삶의 여유와 행복이다. 특히 가족과 함께라면 행복은 배가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전력기술 산우회(회장 김봉환, 총무 이상현)는 1980년에 설립하여 42년간 이어온 동호회이다. 김천100명산 도전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시작해도 충분히 올해 안에 완등할 수 있으며 김천 100명산프로젝트(김천클린산행단) 밴드에 가입 후 김천클린산행단(회장 정택원) 정기산행에 참가하면 김천100명산 완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C](#)



구둔역에서

간이역 모퉁이 녹슨 철로

.....

버려진 철로는 바람과 비와 눈을
적막을 견딜 수 없어

.....

시인 싨태수는 중앙선 간이역이었으나 지금 폐역이 된
구둔역을 이렇게 노래했다. 주말 아침 일찍 서울을 떠나
홀로 구둔역을 찾았다. 비록 역으로서 오랜 소임을 다하고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구둔역에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구둔역길 3. 일제강점기인 1940년 4월 보통 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2012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게 된 이후 아름다운 역사(驛舍)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구둔 마을은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였다. 구둔(九屯)이란 이름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9개 진지를 마을 산에 설치한데서 유래했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마을이 폐허가 됐을 때도
구둔역만은 허물지 않고 남았다.

녹슨 철길 위 두 량의 열차가 멈춰 서 있고, 좁은 대합실엔 삶의 편린이 서린 낡은 의자와 매표창구, 벽에 걸린
열차시간표가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역 마당엔 기다란 나무 벤치와 방문객이 소원을 비는 수령 500년
향나무 외에도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조용한 역사와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연출했다. 역사 지붕 위로 저녁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았다. 조용하고 한적한 그리움의 공간이 된 역사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옛 향수를
다소곳이 간직한 이곳은 지친 몸을 벤치에 걸친 여행자의 고즈넉한 공간이기도 하다.

문명의 편리함에서 잠시 떠나 자연에 순응하며 여유를 즐기며 살고픈 마음은 때론 여행을 통해 천천히 걸으며
느긋하게 사색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재충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아날로그적 감성’을 선사해주는
구둔역은 느낌의 미학이 머무는 안식처로 꼭 가보라 권하고 싶다.



김유정을 만나다

경춘선 종점 춘천역 바로 앞, 김유정역은 춘천시 신남면에 세워졌기에 신남역이었다.

이듬해 동네면과 통합되면서 그 이름은 사라졌지만 역명은 남았고 옛 역사 모습을 품고 있다.

역 안에는 난로와 주전자 같은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런 물품을 보면 옛 추억에 잠긴다. 승강장을 찾은
연인들은 철도 건널목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역사 앞 철길 위에는 한때 못사람을 실어 나르던

무궁화호 열차가 자리를 지키며 방문객을 맞이한다. 운행을 멈춘 열차는 소박한 북카페로 탈바꿈했다. 빨간
우체통도 열차 앞에 놓여 있다. 한동안 잊고 지낸 학창 시절 친구에게 손 편지를 써서 부치면 언제쯤 도착할까?

신남역은 김유정역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경춘선에 복선 전철이 다니게 되면서 바로 옆 새로 지은 역사가
기존의 역사를 대신하고 있었다. 새로 지은 건물은 기와가 얹힌 한옥의 모습으로 ‘김유정’이란 역 이름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렸다. 실례마을의 관문 역할을 하는 역은 소설 속 세상으로
들어가는 장소이다.



실례마을은 금병산이 병풍 모양으로 마을을
둘러싸고 떡시루를 닮아서 ‘실례’라는
이름을 얻었다. ‘동백꽃’속에서 주인공과
점순이가 수탉 싸움을 붙이고 감자를
나눠 먹던 장면이 바로 여기를
배경으로 한다. 김유정이 남긴
30여 편 단편 중 대표작
‘동백꽃’, ‘봄봄’ 등 10여 편은
이 마을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그는 춘천의 자연과 민초들의
삶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겸허함을
배웠고 이를 자신의 토대로 삼았다.
그는 가고 없지만 실례마을에는
지금도 그는 살아 있다. 봄이 오는 계절,
그곳에서 여정을 잠시 멈추고 고요를 벗 삼아
느린 시간을 즐기고 싶다. [E&C](#)



대청댐 야경

늘 보던 대청댐에서 이런 야경이 연출되다니
가로등 산란 빛이 별처럼 총총 빛난다.
방류로 아랫물 흔들리지만 물안개는 비단 같이
부드러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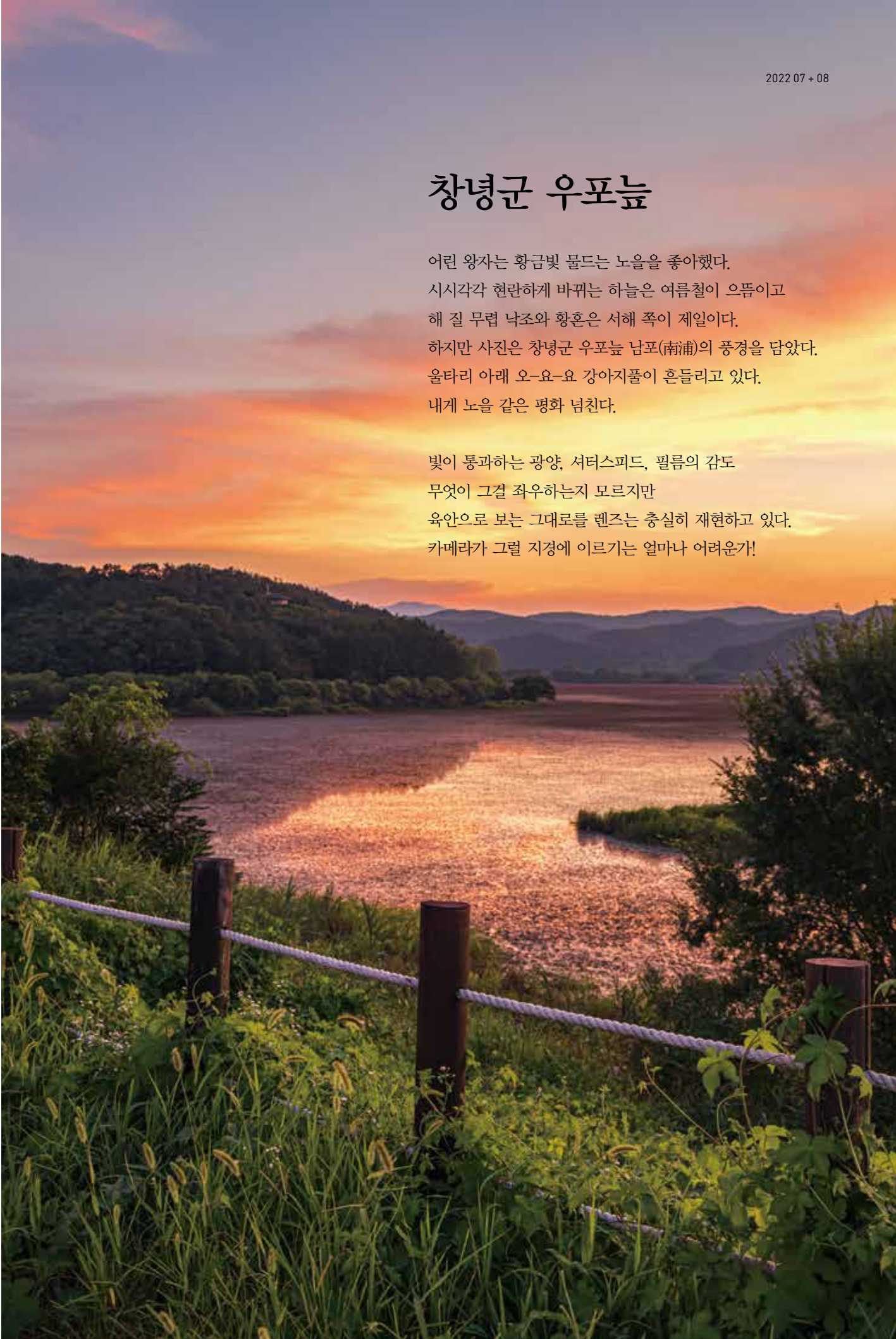
대청호 오백리길 어딘가 부소담악(芙沼潭岳)이 숨어있다.
물이 넓어 바다 같고 또 푸른 하늘과 대칭을 이루면
산들이 연꽃처럼 등실 떠오르는 신기한 모습이다.
그 근원이 모두 대청댐에서 시작한다.

* 참고 : 부소담악은 옥천 군북면 추소리에 있다.

창녕군 우포늪

어린 왕자는 황금빛 물드는 노을을 좋아했다.
시시각각 현란하게 바뀌는 하늘은 여름철이 으뜸이고
해 질 무렵 낙조와 황혼은 서해 쪽이 제일이다.
하지만 사진은 창녕군 우포늪 남포(南浦)의 풍경을 담았다.
울타리 아래 오-요-요 강아지풀이 흔들리고 있다.
내게 노을 같은 평화 넘친다.

빛이 통과하는 광양, 셔터스피드, 필름의 감도
무엇이 그걸 좌우하는지 모르지만
육안으로 보는 그대로를 렌즈는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카메라가 그럴 지경에 이르는 얼마나 어려운가!



Culture

DESIGN

creative

DESIGN POSTER

2022.07.08

Book

세계사를 바꾼 커피 이야기

우스이 류이치로 지음 | 김수경 옮김 | 사람과나무사이



커피는 권력을 원하고
권력은 커피를 원한다.

커피는 어떻게 세계사를 바꿨을까? 이 책은 ‘커피와 커피하우스가 없었다면 프랑스대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영국에서 커피가 홍차에게 밀려난 원인이 여성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독일혁명의 트리거를 당긴 것이 커피였다는데?’ 등 이슬람 수피교도가 욕망을 억제하기 위한 도구로 마시던 ‘검은음료’가 역설적으로 상업자본가와 정치권력자의 ‘검은욕망’을 자극하며 아라비아와 유럽, 나아가 전 세계를 제패한 이야기를 다룬다.

Book

이게 무슨 일이야

우아한형제들 지음 | 북스톤



오늘보다 더 나은 내 ‘일’이 쌓일수록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됩니다.
일 잘하는 법은 사실 잘 사는 법이니까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어느 때고 마주하는 일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인간관계, 피드백과 성과,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 불안, 번아웃 등. 해결방법도 많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이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좋은 회사’ ‘쉽고 명확하고 위트있게’ 일해온 우아한 형제들이 이번에는 ‘이게 무슨 일이야’에서 일문화에 대해 이야기 한다. 유연한 조직, 일 잘하는 팀, 일하는 게 즐거운 구성원을 만드는 노하우는 따로 있다.

Exhibition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대천해수욕장 일원 | 2022-07-16 ~ 2022-08-15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해양산업의 발전과 성공 가능성 및 발판마련을 위해 해양기업과 공공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양머드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거대한 투명 아크릴 큐브에 머드갯벌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 562종의 표본을 연출하여 거대한 생명의 빛을 탄생시킨다. 이외에도 영상관에서 진행되는 화려한 360도 큐브 미디어 아트쇼를 비롯하여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번 박람회의 진가는 박람회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머드 체험에 있다.

Exhibition

2022 다티스트 <위치-나-제안>

대구미술관 4, 5 전시실 | 2022-06-14 ~ 2022-10-03



대구 예술인의 작품관을 돌아보며, 지역 예술의 가치를 찾아보고 국내외에 알리는 프로젝트 ‘다티스트 (DArtist)’가 올해의 전시를 시작한다. 지난해 다티스트에 선정된 이교상, 박창서 두 작가의 개인전이다. 중견부분으로 선정된 박창서의 <위치-나-제안>전은 회화, 설치, 조각, 영상 등 30여점의 작품을 ‘기억’과 ‘풍

경’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다양한 문화적, 예술사적, 장소적 맥락들이 마주치는 상황에서 나 자신을 위치시키고 그 결과물인 예술작품을 관람자에게 제안한다는 취지의 전시이다. 전시 기간 중에는 ‘작가와와의 대화’, ‘작가와 함께하는 작품해설’도 진행한다.

세상을 밝히는 빛

밤늦은 퇴근길
1층 로비에 내려가면
마치 열치매 나토안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듯
청사초롱과 석탑이 불 밝히고 있었다.
사면은 조용하고 붉고 푸른 빛을 바라보다가
박정만의 '작은 연가'를 떠올렸다.

우리가 하나의 어둠이 되어
꽃초롱 앞세우고 가야 한다면
또는 물 위에 뜬 별이 되어
눈 밝히고 가야 한다면.....

아직도 사옥 어딘가 불 켜진 사무실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발전소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는 어떤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싶을까?

석탑 아래 쓰인 글이 눈에 들어왔다.

“천년을 이어갈 석탑의 빛은 한전기술의 마음입니다”



직원 탓인가, 시스템 오류인가?

경영혁신실에서 안전 문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발행하는 안전 메시지입니다



19세기까지 빈곤과 정신병리는 개인의 문제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게으르고 가난하면 그 사람 잘못이다. 하지만 산업구조와 경제변화에 따라 성실한 사람도 가난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사회적 환경이 조명된 것은 구조주의 영향이 컸다. 인간은 자기 의지보다 사회적 요구와 억압에 잠식되어 행동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재(人災)로 빚어진 일이다"라는 보도가 반사적으로 나온다. 현장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당사자가 지목된다. 이는 사고 상자 안에 상한 사과를 제거하면 나머지 사과와 상자는 안전하다는 논리이다. 아무래도 일부 사과가 골랐다면 나머지 사과와 보관 상태도 과히 좋지 않다. 이렇게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발본색원하려는 방향이 안전 원칙이 되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근로자 5인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9층 바닥 슬래브 타설을 위한 데크 플레이트 설치 도중 붕괴가 일어났다. CCTV를 보면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한 칸막이와 철헤빔이 굉음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 장면이 찍혔다. 설계와 시공 경험이 많은 이 업체는 현재 건설업 등록말소, 영업정지, 퇴출처분에 놓여있다.

설계, 구조 변경, 감리 등의 사고 원인은 제외하고 과거 부실시공 제재를 받은 기업에서 사고가 난 것은 수정 조치(Correction Program)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현장감독 오판과 지시가 원인이라면 실수의 책임 범위는 좁혀진다. 반대로 확대하면 회사방침, 커뮤니

케이션, 사전 예방조치, 작업 상호검증, 안전조치 이행 여부, 작업 판단까지 시스템 전반을 그려볼 수 있다. 이는 종국적으로 '안전성 문화' 척도로 함축된다.

- A. 사고 원인은 실수를 저지른 개인에게 있다.
- B. 사고 원인은 그런 상황 또는 시스템에 내재해 있었다.

A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판단을 한 세부적 원인을 탐색한다. 손쉽게 사고 경위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B라는 관점으로 이동하면 운영 주체와 상황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망한다. 유사 선례와 행위까지 광범위한 조사로 복합적 원인을 점검한다.

'관행(practice)'이란 의미를 알아보자. 공평무사하게 지속했던 일 또는 절차이다. 최근 법규, 적용기준, 지침 등이 바뀌어 해석이 엄중해진 측면이 많아졌다. 이전 해왔던 일이라고 모든 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관행은 나중에 개인이 '알았다(認知)'와 '몰랐다(不知)' 여부도 중요하고, 행위에 능동 참여하였는지, 수동 참여하였는지도 따지게 된다. 사고의 책임소재와 제재경중이 이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시스템 구조 하에서 인간의 판단과 행위는 과거 환경과는 무척 달라졌다. 개인의 잘못이든 시스템 오류이건 사고가 발생하면 조직 전체가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기업 존립과 사업영역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으니 안전을 늘 의식해야 한다. **E&C**

Editor's Letter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낼 때 손흥민 골인 장면을 찾아보는 낙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까지 올랐습니다. 영국 전용 축구장은 화면으로 보면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스타디움과 경기장이 딱 붙어 있다 싶을 정도로 간격이 좁아 관람 체감도는 높습니다. 유럽 축구는 중계, 쇼핑, 도박과 연계된 '전(錢)의 전쟁'으로 거대 스포츠 산업입니다. 그걸 지탱하는 축구 사랑과 열정이 있겠지요.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유전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으로 여름철 수영장에서 백인과 황인 아이들이 풀장에서 놀았습니다. 40분 지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춥다고 나오는 아이들은 아시아계 아이뿐이었습니다. 한겨울 얇은 시트 한 장 달랑 감싼 채 돌돌 말고 자는 백인이 많습니다. 카프리섬에 배 타고 갈 때 그날 파도가 높아 동양인은 모두 안색이 노랗게 변하고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신기하다고 구경하는 눈들은 전부 유럽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위와 멀미, 그리고 근력은 유럽인이 선천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어찌 저렇게 잘할까?" 중국인과 일본인도, 우리도 깜짝 놀라는 어떤 면모가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이달의 한컷!

커피쿠폰
1만원

- 신서정 (기계배관환경기술실 사원)
- 이지연 (사업지원팀 사원)
- 김다정 (원자력사업처 인턴)
- 이소원 (사업관리팀 사원)
- 유성호 (해외사업그룹 부장)

독자의견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

- 김경태 (기술전략실 차장)
- 박철수 (사외독자)
- 김기학 (사외독자)
- 이현희 (사외독자)
- 강영숙 (사외독자)

원고모집



■ 여행이나 맛집, 반려동물, 취미 등과 같은 직원 여러분의 또 다른 일상을 소개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원고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사보에 소개해 드립니다.

▶ 분 야 : 또 다른 일상을 소개하는 에세이

▶ 원고 분량 : A4, 2면

■ 평생 정을 나누며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절친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과 친구 1명이 함께 2인 또는 3인으로 산책, 식사하면서 즐겁게 대화 나누는 대담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분 야 : 기획코너 ▶ 원고분량 : A4, 2면

원고료 제공, 신청하시고 계획 제출 후, 기타 지원 방안 협의

■ 여러분의 추억이 깃든 사진이나 짧은 에세이를 적어 보내주시면 사보에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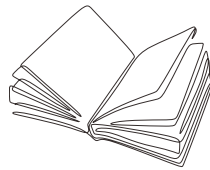
▶ 분 야 : 기획코너 ▶ 원고분량 : A4, 1면

원고료 제공합니다.

독자의견 및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원고는 8월 15일까지 sky03tree@kepco-enc.com으로 보내주세요. 원고나 독자의견을 보내주실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꼭 보내주셔야 상품 전달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호 사보를 읽고(독자의견)



• 5월은 감사해야 할 사람들,코로나19로 돌아보지 못했던 소중한 가족들에게 애정을 표시하기 좋은 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기인의 메아리 '가족이 함께한 이야기'설문조사는 정말 시기 적절합니다. 작년 부모님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수술받으셨다는 한기인의 글을 읽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또한 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안부전화를 드렸습니다.

(강영숙 사외독자)

• <갈등관리와 소통> 칼럼을 보며 그동안 저의 사람관계 방식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대체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스트레스 유발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때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인간관계에 있어 100% 만족스러운 갈등 해소 방법은 있을 수 없기에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만이 갈등관리의 핵심이라는 조언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협력성과 자기주장성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센스와 상황파악 능력을 키워나가다 보면 '갈등'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여겨지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현희 사외독자)

• 5+6 사보 재미있고 유익하게 아주 잘 읽었습니다. 모두 좋은 기사들인데 저에게는 특히나 갈등관리의 소통편에 소개된 '갈등 앞에서 유연함만이 원인을 이끈다'를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갈등 없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은듯 합니다. 특히 갈등의 주 대상이 가족이나 지인등 내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 하는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유형별로 자신의 성격이나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는 유연함이 문제를 푸는 열쇠였습니다. 유연함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서로가 서로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양보하는 마음등 갈등의 원인 자체를 만들지 않는게 좋지만 일단 갈등이 생기면 원원하는 유연함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겠네요.

(김기학 사외독자)

• <이효석 문학관> 문학순례를 읽으니 9월 메밀꽃 필 무렵 봉평에 있는 <이효석 문학관>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꼭 떠나고 싶습니다. 흐뭇한 달빛, 별빛 아래 소금을 뿌린 듯한 새하얀 메밀 꽃송이를 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봉평장터에서 맛있는 메밀전병에 메밀막국수도 먹고 이효석이 좋아한 커피도 마시면서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김경태 기술전략실 차장)

• 문화소식편을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문화생활을 거의 즐기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이 세상 모든것을 얻은 것같이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매력자본 서적, 소년심판 드라마, 팀버튼 특별전 등등 생각만해도 가슴이 벅차고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네요. 앞으로는 그동안 못했던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여유있는 삶을 만끽하겠습니다. 다음호는 7.8월호이네요. 여름의 대명사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숨어있는 피서지 소개해주시고 여름철 건강관리, 피부관리, 안전사고시 응급처치 방법등을 다루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철수 사외독자)

